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 강림절 후 제2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4. 하나님이 친히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성령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의 겸비한 종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빈 손이 부끄럽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원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채우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은 도려내 주시고 새 살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화와 생명의 새 세상을 열어가려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29:11	인도자
♠ 교 독 문	26. 시편104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성경봉독	I. 눅19:1-10	인도자
	II. 롬12:3-8	강순배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너는 원래 누구니?	김재흥 목사
	II. 서로 지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모든 이들의 가슴에 안겨 주십시오.

다함께 : 아멘. 이제는 원망의 말과 불평을 버리고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라도 은총의 생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총회	성서의 평화(11) : 김기석 목사
기도회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고광송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전나래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조항미 집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안길상 박재실 박혜경 이형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중수 김훈동 박효선 백혜숙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낙담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낙담은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후에는, 앙심과 태만함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이 혼란한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으므로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가 수덕적인 노력 때문에 영혼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해를 입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정념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 영혼의 상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원인을 뿌리 뽑으라고, 그리고 영혼의 건강은 동료들을 멀리하고 혼자 지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수덕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한 이유 때문에 형제들을 버릴 때, 우리는 낙담할 동기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데 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질병은 후일 다른 상황에서 다시 모습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내면에 숨어 있는 정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근절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과도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욥5:23)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영혼을 절망 속에 밀어 넣는 낙담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마귀를 몰아내야 합니다. 이 마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회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회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양해야 할 유일한 낙담은 죄에 대한 회개와 병행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수반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낙담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고후7:10)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기쁨이 섞여 있으며, 회개가 만들어낸 소망을 통해서 영혼을 양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하기 쉽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환란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류의 낙담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열매—게으름, 조급함, 노염, 미움, 싸우기를 좋아함, 절망, 기도를 게을리 함 등—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 탐욕, 노염 등의 정념을 피하듯이 두 번째 형태의 낙담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 성경 묵상,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함 등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

여섯 번째로 게으름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 낙담의 마귀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이 거칠고 무서운 마귀는 항상 수도사를 공격하며, 한밤중에 습격하여 그를 해이해지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도원과 동료 수도사들, 수도원 내에서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 성경 읽는 것까지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는 수도사에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만일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는 사흘 동안 금식하거나 오랫동안 여행한 후, 또는 힘들게 일한 후에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던 수도사로 하여금 한밤중에 배고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종종 형제들을 방문하여 도와주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살피 주지 않는 한, 이 심각한 질병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일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수도사를 빛나가게 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를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공격은 점점 더 거칠고 강해집니다. 기도하고 무익한 말을 피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함으로써만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수도사가 이러한 무기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화살로 그를 쏘아 쓰러뜨려, 이 수도원 저 수도원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르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는 곳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계속—존 카시안)

사랑법

그대 진실로 나를 사랑하려거든
높고 고상한 이름뿐인 나를 사랑하지 말 것,
다만 낮고 낮은 곳에서 머리 풀고
속으로 흐느끼는 나의 슬픔을 껴안을 것,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울 것,
외로운 자와 함께 외로와 하고
분노하는 자와 함께 분노할 것,
목말라 하는 자의 목마름과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나누어 가질 것,
그대 진실로 나를 사랑하려거든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으로 가득찬
그대 병든 가슴을 죽도록 미워할 것.

(이 시를 쓴 서덕석은 어릴 적에 앓은 열병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졌지만 공사관 인부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에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권혁순 박혜경 김용진 박효선 이선림 박애순 정완수 김재광
 배상순 임영 정경례 이유선 방극숙 안정숙 박창운 허정윤 정복순
 권미숙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박석희 조항미 이용희 김정섭 김극 배부레 전영자 조순덕 우영규
 유혜경 류건형 문홍일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양준하 양인하 한상익 정영선 이재문 최미선 권미숙
 송임희 김준우 이응구 한선희 박범희 박미영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최숙화 임주빈 최현옥 유혜경 권미화 백숙현 오진훈 노순옥 무명3

생일감사헌금: 조병무 조해인 이한림 무명1 구도헌금: 류건형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혜경 이선림 (누계- 13,300,000원)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차혜심	유영남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진경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문영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진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이인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이봉옥	강순배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구성실	이명희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정현주	이영옥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최영선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박미영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11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2. **총회** : 오늘 오후 집회는 각 선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새롭게 조직되는 모임이니 교우들은 각 연령대에 맞게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당회** : 2006년도 당회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4.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 봉사가 12월 1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5. **쌀라면 판매** : 농도생협에서 유기농쌀로 만든 쌀라면을 판매합니다.
6. **결혼** : 홍승표/김혜진(김정길·최숙화 권사 차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때-12월 2일 오후 3시 30분 곳-탑 웨딩 갤러리
7. **신앙실천** : 내복을 입으면 선선하고 쾌적한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 식당 봉사 : 엠마오 숙

* 헌화 : 김종수 권사 (생일감사)

12월	영접	한상익 김훈동 최철수 안정숙 유혜경 정영선
	헌금	윤석철 이호원 윤주원 조병주 허정윤 강순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